



조간 제795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음력 9월 14일)



“걸으면서 기부로 온정 나뉘요” 2일 오후 광주 서구 영산강 친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제5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에 참가한 김이강 서구청장과 양부남 국회의원, 주민 2000여명이 역세숲 사이를 걷고 있다. 참가비 ‘오(5)천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2)웃’의 희망을 잇는다는 의미를 담은 오잇길 걷기대회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 속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5.2km의 기적’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행사다.

광주시민 72%, 전남과 행정통합 ‘긍정적’

시의회 행정자치위, ‘특별광역연합’ 추진 여론조사
응답자 절반, 사업 자체 미인식...정책 홍보 등 필요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의 연내 출범이
도의회의 제정으로 멈춰 있는 가운데 광
주시민 대다수는 ‘광역연합이 필요하다’
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광주시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향후
광주·전남의 ‘완전한 행정 통합’에 대해서
도 찬성하고 있어, 특별광역연합이 중장
기적으로 행정 통합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여론 기반도 확인됐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

원회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와 전남도가 추진 중인 특별광역연합 설
치에 대한 인식과 정책 수요, 우려 요인
등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광역연합 설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응답자의 71.4%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긍정 인식이 부정 인식(28.6%)보
다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돼 시민들
의 기대와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으
로 확인됐다.
광역연합 추진의 성공 조건으로는 ‘광

주·전남 간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율’
(33.3%)이 가장 높게 나타나, 양 지자체
의 신뢰와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
로 봤다.
이어 ‘공동사업 발굴’ (21.3%), ‘중앙정
부의 지원’ (18.3%) 등의 순이었다.
또 우선적인 협력 분야로는 ‘산업경제
활성화’ (32.3%)와 ‘광역교통’
(31.8%)이 가장 높았고, 이어 ‘관광·문
화’ (17.7%), ‘복지교육’ (10%), 환경·에
너지’ (8.1%) 순이었다.
특히 제1호 공동사무인 광주·나주 광
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69.1%의 찬성
응답을 보였다.
광역연합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광주·
전남 상생발전’ (43.6%)이 가장 많았고,
이는 시민들이 광주와 전남이 공동 성장

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브랜드 경쟁력
강화’ (25.9%), ‘행정 효율성 향상’
(21.7%), ‘주민 서비스 개선’ (8.7%) 순
이었다.
반면 우려 요인으로는 ‘정치적 이해관
계 충돌’ (26.7%)이 가장 높았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 (23.5%), ‘권한 배분 갈
등’ (22.1%), ‘행정비용 증가’
(17.3%), ‘추진 불투명성’ (10.5%) 순으
로 조사됐다.
또 향후 광주·전남의 완전한 행정 통합
에 대해서는 71.7%가 찬성(매우 긍정
22.4%+긍정 49.3%)해 일정 수준의 공감
대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청래 “내년 지선, ‘100% 당원 주인’ 경선”
전남도당 당원대회...“당원주권시대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사진)는 2
일 “제2의 내란극복이라 할 수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
며, 당원들의 마음이 반영된 민주주의 경
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열린 전
남도당 임시당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에
서 “당 지도부부터 가진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고, 그 기득권을 당원에게 돌려드
리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억울한 것
오프를 없애겠다”
며 “결격 사유가 있
어서 부자격자로 판
정된 분이 아닌 분
은 경선에 다 참여
시키겠다”고 말했
다. 이어 “100% 당원이 주인 되는 경선,
당원들의 마음이 100% 녹아서 관철되는
완전한 민주적인 경선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 없이 그리고 승복하는 경선이 돼서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덧붙
였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심장인 호남에 올 때마다 하나하
나 배운다”며 “여러분에게 배워서, 이제
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놓은 대
통령으로 기록되면 저 정청래 당 대표는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당 대표로
기록되고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2025 APEC 폐막...‘경주선언’ 채택

문화창조산업·AI 공동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도
한미 관세협상 ‘타결’
미·중·일 등 회담 실리

경주에서 지난 31일부터 1일까지 1
박2일 일정으로 열린 ‘2025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선언’을 채택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
정상들이 지난 1일 ‘문화창조산업’과
‘인공지능(AI)’, ‘인구구조 변화 대
응’ 분야 등에 대한 공동 인식과 협력
에 뜻을 모은 ‘APEC 정상 경주선언’
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2·4면
‘APEC 정상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
(Connect)·혁신(Innovate)·번영
(Prosper)’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
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
이 포괄해 담겼다.

이번 경주선언은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성장동력’
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
했다. 이는 ‘문화창조산업’을 명시한
APEC 첫 정상 문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앞으로 ‘K-
컬처’가 아태지역 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이 제안한 ‘APEC AI 이
니셔티브’와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도 채택했
다. ‘AI 이니셔티브’는 모든 회원이
AI 전환 과정에 참여하고 AI 기술 발
전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AI
혁신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역량 강
화 및 AI 혜택 확산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나서는 것이 골자다.

정상회의 기간에 대한민국은 난항
을 겪던 미국과의 관계 협상에서 실의
를 얻어내며 타결을 이뤄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완료했다.

한미 양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
린 한-싱가포르 공식오찬에서 발언하고 있
다. (한민)

자 펀드를 2000억달러 현금투자,
1500억달러(213조1650억원)는 조선
업 협력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
러로 설정했고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
는 한국 기업 주도도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15%로 유지하고 25% 부과
하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며 의약품·목
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너레이터(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직접 핵연료 추
진 잠수함의 도입을 요청해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

사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사
나에 일본 총리와 각각 처음 대좌한
한중·한일 정상회담도 우호적으로 마
무리됐다.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은 호혜적이고 안정적으로 양국의 관
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앞선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강
경 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총리와
도 교류·협력을 이어가기로 하고 ‘셔
플 외교’ 역시 지속하는 데 합의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74 / 010-4572-7164